

나를 말리지 말아 줘

(반사회적 성격 장애)

여러 가지 유형의 성격 장애 중에서 ‘슈퍼 성격 장애’, 또는 ‘성격 장애 골드’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소위 프리미엄급 성격장애라면 단연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꼽을 수 있겠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자동차 사고와 같은 일면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 중 약 80%는 바로 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한다.

이 유형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첫째, 타인에게 해를 주는 행동을 하되 그 동기가 모호하다는 점인데, 이것은 즉각적인 욕망의 충족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성격상의 특징 때문이고,

둘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이나 후회가 없어서 사고를 치고 나서도 불안해하거나 죄책감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으로 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에서도 전혀 불안에 대한 예감이 없어 늠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셋째, 극도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을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한가지의 특징을 덧붙이자면 이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비교적 준수한 외모와 함께 첫눈에 호감을 주는 인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 겉모습과는 달리 전혀 신의(信義)가 없고 불성실하며 매사를 거짓말로 뻔뻔하듯 하며 살아간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정신 병질자(精神病質者)라고도 불리었던 이들은 흔히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속이고, 끝없는 거짓말로 자신의 신분이나 부모의 배경을 과장하고 다니며 때때로 자신의 거짓말에 자신도 도취되어 ‘정말로 그렇다고 믿는’ 환상적인 거짓말쟁이(Pseudologia fantastica)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도 쉽지 않아 늘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데다가 직업적인 적응력이 매우 낮아 수도 없이 직장과 직종을 바꾸는 경우도 흔히 있다.

술이나 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며, 아무 대책 없이 남의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아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그 상황에 적절한 감정 반응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점이 그들에게 큰 문제점이다.

때로 “나는 왜 이럴까”하며 몹시 후회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잘 살펴보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현재 불이익을 당하게 된 상황에 대한 불만일 뿐, 깊은 자기 성찰이나 반성은 없는 것이 보통이다. 결국 부모나 친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도 못 하며 지속적으로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아간다. 이들 중 1/3 정도는 애매모호한 신체적인 불편을 호소하여 소화 장애, 체중 감소, 불안 발작, 어지러움, 여자의 경우는 월경 곤란 등을 호소한다.

‘반사회적’이라는 용어의 해석상, 흔히 ‘폭력 조직’의 일원으로 활약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으나, 위에 열거한 여러 특징이 충족되지 않으면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분류하지는 않는다.

그들 중 상당수의 사람은 가미가제가 일본 천황에게 맹 목적적인 충성을 바쳤듯이 자신의 조직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비사회적 성격(Dyssocial personality)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반사회적인 행동을 일삼는 조직의 특성상 집단으로 행동할 경우는 반사회적인 성격장애로 비추어 지기는 하나 조직 밖에서의 생활은 보통 사람들과 섞여져서 표시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사회적 성격장애 환자들은 사회에서 끝없이 물의를 일으키고 반복해서 사고를 치며, 돌아서서는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이들에게도 끝없이 깊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때로는 40대에 들어서면서 일정 부분에 대해 자기 성찰과 반성하는 마음이 생겨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남들 보다 좀 많이 늦게 철이 든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다.